

달라진 연기금 운용평가 벤치마크 코스닥 유입 '16.5조' 제한적 전망

30조 이하 대형·중소형만 적용
사회보험성·사업성 반영시 11조
“단기간 내 비중확대 기대 어려워”

코스닥 시장에 유입되는 연기금 자금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내 연기금 운용평가의 기본 벤치마크 변경은 30조원 이하의 대형·중소형 연기금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의 이번 자산운용 평가 기준을 개편에 따른 코스닥 벤치마크 변경으로 적용될 추종자금은 16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성 기금의 주식비중 증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보험성, 사업성 기금의 반영은 11조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코스피 단일 벤치마크를 사용하던 연기금의 평가기준 수익률이 코스피 95%에, 코스닥 150.5%를 혼합한 지수로 변경된다. 다만 이번 벤치마크 변경의 실질적인 영향은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 연기금과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연기금에만 해당되면서, 국민연금과 초대형 연기금, 일부 소형 연기금 등이 제외된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연기금 운용평가의 기본 벤치마크 변경은 30조원 이하의 대형·중소형 연기금

만 적용된다”며 “시장에서 제기된 1400조원은 2025년 국내 전체 공적 연기금의 여유자금 예상액인 만큼, 주식시장 투입 가능 자금과는 괴리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적으로 국내 연기금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026년 자산운용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보험성 기금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분산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은 9조6000억원(15%)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고 연구원은 “사업성 기금은 단기 지출 성격으로 자산 배분의 구조적 변화는 어려워 보이며, 기존 금융성 기금은 높은 비중의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자산이 국내 주식형, 벤처투자를 포함한 대체투자 쪽으로 요구될 수 있다”며 “적정 자산배분 비중은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준을 참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서더라도 자산 배분의 기준점은 사회보험성 기금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 그 이상의 비중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연기금의 위탁 운용 관점에서는 액티브 펀드 특성과 코스닥 종목의 상대적인 시장 전망치(컨센서스) 부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증권사 2곳 이상의 목표주가가 제시된 코스닥 종목은 111개 수준으로, 스크린 가능 종목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된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를 연기금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소식 자체가 지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날 코스콤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3위 ETF는 모두 코스닥 지수 투자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KODEX 코스닥150’ ETF로 2조6775억원, 다음으로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를 1조5611억원씩 순매수했다. ‘TIGER 코스닥150’ ETF도 6489억원 담았다. 일주일 동안 코스닥 지수 상승에 약 4조5000억원 넘게 베풀한 셈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며,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 자금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나 연구원은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2025년 4월 이후 현물 기준으로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주식 ETF에 대해서는 11조4000억원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을 패시브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흐름은 개인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난 1일 경기도 화성 테니스엔파이어에서 개최된 ‘제1회 하나증권 라이벌스컵’ 시상식에서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윗줄 가운데), 이형택 이사장(윗줄 오른쪽에서 9번째), 갈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윗줄 오른쪽에서 10번째)이 우승 및 입상팀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제1회 라이벌스컵’ 마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꺾고 우승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문화 제시

하나증권은 지난 1일 기업 간 테니스 대항전인 ‘제1회 하나증권 라이벌스컵’의 결승전과 시상식을 끝으로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첫 서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총 8개 그룹, 24개 주요 기업 테니스 동호회가 참가해 매 주말 열린 경기를 펼쳤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문화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망의 결승전은 준결승에서 농협

을 꺾고 올라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팀이 우승 깃발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벌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삼성전자가 제1회 대회 우승의 영예를 안으며, 매년 우승 기록이 자수로 새겨지는 ‘라이벌스컵 방패 깃발’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과 이형택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시상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상금 100만 원을 놓고 펼쳐진 이벤트 경기 ‘원포인트슬램’에는 이형택 이사장이 직접 선수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최종 우승은 정원식(SK하이닉스)이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분석 알고리즘 개발

AI 기반 시세조종 혐의 구간 자동탐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초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적출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조사원이 수작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여러 개의 세부 구간(수초~수개월)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 자동으로 이상 매매 탐색을 실행한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시세조종이 발생한 혐의 구간은 전부 적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입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수십만 개 이상의

초 단위 구간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완료 사건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발견한 모든 혐의 구간뿐만 아니라 조사원이 탐지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추가로 발견해 정확성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매매분석 플랫폼(VISTA)에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해 혐의 계좌군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화 분석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혐의자의 온체인 데이터(네트워크상 기록돼 공개되는 모든 거래 정보)와 자금 거래를 분석해 추가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추적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허정윤 기자

김성환 “고객에 더 빠르고 정확한 해답 제시”

(한국투자증권 사장)

한투증권 ‘2026 경영전략회의’

각 사업부문 핵심과제·로드맵 논의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한국투자증권은 ‘2026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경영전략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임원 및 부서장 240여명이 참석해 2026년 시장 환경과 전망을 점검하고, 전사 사업 계획과 사업부문별 세부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한국투자증권 2026 경영전략회의 현장에서 김성환 사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 구체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성환 사장은 올해 경영 키워드인 ‘Beyond Boundaries’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 사장은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의 기준이 바뀌는 국면에서 비즈니스의 경계와 국경, 업의 경계를 넘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회사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사장은 “우리의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경계를 넘어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한국투자증권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3일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텝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분석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렇게 생성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종목들을 점수화해 수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해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허정윤 기자



스밋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재직하며 스쿼드 중심의 제품조직 전환과 신규 사업 성장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은 김 상무가 디지털 조직의 실행력과 대형 금융사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디지털 프로덕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